


국제기구·수출신용기관
◆ 미주개발은행, 칠레 도로 보수사업에 7,500만 달러 보증 제공

미주개발은행은 칠레의 도로보수 사업에 7,500만 달러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. 동 보증은 수도인 산티아고와 최대 무역항인 발파라이소를 연결하는 도로의 개·보수 공사를 위해 발행되는 3억 달러 상당의 채권발행을 대상으로 한다.

현지통화 표시로 발행된 동 채권은 신용평가기관인 Moody's社로부터 Baa2의 신용등급을 획득하였는데, 이는 칠레에서 시행된 도로건설 프로젝트 관련 발행채권

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. 동 건과 관련하여 IDB 이외에 뉴욕 소재 Fianancial Security Assurance社 역시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.

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4억 1,600만 달러로, 스페인의 ACS社와 SACYR社가 프로젝트 스폰서를, 칠레의 Santander Investments社가 채권발행의 주관사 업무를 맡고 있다.

【黃秀泳】